



스페인 위기 조기 불식을 위한 ECB의 스페인 국채 매입 시사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스페인의 규제금융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럽중앙은행(ECB)의 스페인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개 의사 표명으로 유럽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.
 - ECB는 2012년 2월 말 3년 무제한 대출(1차 LTRO) 이후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 있으나 스페인 국채 금리가 치솟아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스페인 국채매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힘.
 - ECB는 스페인 신정부의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 조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에 나타난 스페인 국채 금리 급등은 시장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함.
 - ECB의 발언으로 6%에 육박했던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월 11일 5.877%로 떨어졌으며,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같은 날 전일대비 15bp 하락한 5.534%를 기록함.

- 또한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는 스페인 금융권에 구제기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으로써 ECB의 스페인 위기 조기 불식 행보에 보조를 맞춤.
 - EC는 스페인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위한 유로존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.

- 다수의 전문가들은 ECB와 EU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스페인의 국채금리 상승이 2011년 하반기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.
 - 절대적인 수치로만 본 스페인 재정 상태는 당장 상환불능을 걱정할 단계는 아님.
 - 2011년 스페인의 부채비율은 68.5%로 이탈리아(121.1%)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.
 - 전문가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유럽중앙은행(ECB)이 국채 매수와 3차 장기대출(LTRO)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함.

- 다만, 2012년 스페인 정부의 재정 긴축(안)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하고, 재정긴축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도 있어 재정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는 나타나지 않음.
- 스페인 경제가 2011년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에 진입했고 스페인 정부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2.3%에서 -1.7%로 하향 조정함.
- 2011년 재정적자 비율은 8.5%로 당초 목표치 6.0%를 크게 상회했으며 정부 부채 비율도 68.5%로 높아져 2012년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음.

(Financial Times, 4/11)